

# 친환경 가야산 생태탐방로 개설된다

## 2년여 노력 끝에 '가야산 관통도로' 변경 합의... 생태문화권 조성

수덕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시민 단체들이 2년 넘게 반대해 온 '가야산 관통도로'가 자연이 숨쉬는 '생태탐방로'로 변경됐다.

충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지역 환경단체와 불교계 인사로 이뤄진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와 회의를 열고 가야산 생태탐방로 개설에 합의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백제불교문화권의 핵심인 가야산 생태보전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30개월에 걸쳐 가야산의 가치를 알리고 개발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

다.

당초 충남도는 서산과 예산, 당진 등 백제 문화유입지인 내포 문화권 개발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405억원과 도비 45억원 등 450억 원 규모의 서산-예산간 10km에 가야산 관통 포장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가 2007년부터 '관통도로가 개설되면 환경은 물론, 마애삼존불(국보 84호) 및 보원사지 등 찬란한 불교문화 유적까지 훼손된다'며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

히 반발하고 나섰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응산)도 문중 스님들이 직접 나서 매년 포장도로 구간엔 '백제 미소길 걷기 대회'와 템플스테이를 여는 등 불교문화 보호와 홍보에 주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가야산의 생태환경과 불교문화 유산이 훼손되는 측면에서 사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가야산 주변을 지나 기존 국도 49호선과 지방도 609호, 618호선을 개량해 같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덕사 총무국장 정암 스님은 "생태탐방로 개설을 계기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원사지 발굴과 더불어 가야사지 발굴, 주변 자생종 육성 등 다양한 생태 보존·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불교계도 다양한 연계 문화행사를 준비해 후대에 다시 생김지 모르는 포장도로를 막고 생태문화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내생에 더 큰 업적 남기소서”

## 故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 회향법회·안장식 엄수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 회향법회가 7월 10일 봉하마을 정토원을 비롯해 조계종 전국 25개 교구 본사와 주요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봉하마을 정토원에서 열린 조무현 前 대통령 49재 모듬. 사진제공=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

봉하마을에서 열린 49재와 안장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밑은 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등 100여 불교계 인사와 3만여 명의 추모객이 참석했다.

49재는 세민 스님 설법, 밑은 스님 천도법문, 보선 스님 추도사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49재를 마친 뒤 '노前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봉하산 사자바위 아래에 조성된 묘역에 안장식을 엄수했다. 안장식은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영상 상영, 21발의 초종 발사, 묵념, 비석설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장된 유골함은

태극기에 둘러 쌓인 백자함으로 만들어져 연꽃함이 있는 석함에 안치됐다. 석함 안에는 노前 대통령의 재일시절 활동모습과 추모영상이 담긴 DVD 등 부장품도 함께 봉안됐다.

같은 날 서울 조계사와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조계종 전국 25개 교구 본사와 전국 주요 사찰에서도 49재가 거행됐다.

합천 해인사에서는 49재를 봉행하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직접 영가 천도법어를 내렸다. 1000여 시민들이 함께한 조계사 49재에서 무

게 하는 노前 대통령 추모 문화제 '일곱 걸음, 새 세상'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화 스님, 조계종 前 교무원장 청화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유시민 前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화 스님은 추모시 낭송에 앞서 "이제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승화시켜 결집할 때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할 길을 찾고 지금 이 자리가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장 스님은 영가 천도 법문을 통해 "현생에서의 좋은 의지와 업을 간직하여 내생에 다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좋은 업적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는 불자와 일반 시민 2000여 명이 함께 하는 노前 대통령 추모 문화제 '일곱 걸음, 새 세상'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화 스님, 조계종 前 교무원장 청화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유시민 前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화 스님은 추모시 낭송에 앞서 "이제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승화시켜 결집할 때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할 길을 찾고 지금 이 자리가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연·박지현 기자

# “하늘이 무너집니다” 약사사 전소

화재보험이 만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화재에, 입고 있는 속옷만 겨우 건진 한 사찰 주지스님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창건된 지 30년이 넘는 강북구 우이동의 약사사주지 현호에 누전으로 인한 불이 난 것은 7월 6일 새벽 4시 30분경.

불길을 발견한 인근 주민이 38분경 119 신고를 해 인근 도봉소방서가 출동한 시간은 무려 45분이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주거지역 이면주차 때문에 불이 난 지역으로 접근하려면 소방호스를 길게 연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예상 보다 훨씬 늦은 대응에 법당과 요사채 등이 모두 타버렸다.

현재 스님은 입고 있던 속옷과 적십자에서 보내준 운동복 3벌이 가진 전부다.

화재 잔재를 치우는 인부고용 비용 부담도 스님이 직접 하고 있다.

현호 스님은 "화장실만 남고 모두 타버린 상황"이라며 "오래된 사찰이어서 화재보험도 5년 만기 후 재가입이 불가능해 현재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010) 7176-2177

노덕현 기자

# 사찰 앞에 버젓이 도로를? 이전 보상 요구 거절한 도로공사 행태 '충격'

40년 된 사찰 정문 앞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사찰 측의 이전 및 보상 요구를 거절한 도로공사의 안하무인식의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보광사(주지 동화)는 6월 25일 15년간 대진고속도로로 인해 사찰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전해 왔다.

보광사 주지 동화 스님은 "공사당시 신도 1000명의 서명을 받아 이전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한국도로공사와 대전광역시 등에 보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전보상 불가를 밝히고 소음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당시 약속대로 도로공사 측은 소음벽을 설치했지만, 도로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며 소음피해가 커져 이러한 조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보광사 측은 △교통량 증가로 가중되는 차량운행 소음 피해 △도로



보광사 대웅전에서 바라본 사찰정문, 고속도로 밑 터널로 일주일이 지나 있다.

# 수지 여사 즉각 석방 불교여성개발원 촉구

미안마 민주화와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에 대한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이 7월 7일 서울 한남동 미안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웅산 수지 여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회견에서 불교여성개발원과 NLD관계자는 "최근 미안마 정부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수지 여사를 부당한 사유로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안마 군사정부는 민주인사 탄압을 중지하고 민주화 절차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이인자 고문 등 여성개발원 관계자 10여 명과 미안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NLD)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7월 7일 미안마 대사관 앞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연 기자

# “한국불교 일꾼 육성에 힘쓰터” 불이회, 제24회 불이상 시상

여성불교, 재가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7월 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24회 불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불이상 수상자는 실천분야에 능행 스님(정토사관자재회 이사), 연구분야에는 임영애 교수(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와 안준영 교수(토론토대학 종교학과·동아시아학과)가 수상을 차지했다.

홍라희 회장은 "앞으로 한국 불교계에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한국불교



왼쪽에서 두 번째 홍라희 회장과 네 번째부터 안준영 교수, 능행 스님, 임영애 교수.

의 선구적 일꾼 육성과 발전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홍라희 회장, 정병조 심사위원장(동국대 교수, 한국 불교연구원 이사장), 원각불교사상 연구원 권기중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불교계 약대 설립” 불교생명윤리研 촉구

바이오산업 성장 가능성으로 제약분야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불교생명윤리연구소가 7월 1일 불교계 약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육성방침으로 연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이 약학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불교생명윤리연구소(이사장 영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국대 측에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동국대학 재단은 미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약학대 설립에 적극적 나서야 한다"며 △동국대 약학대학 설립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의 승인 △승가대 약초재배학과 개설 추진 등을 요구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두려울 때는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① 늙음·죽음·병들·슬픔·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② 기도·보시·공덕·효도·자비에 대한 가르침!  
③ 참된 친구·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④ 바른 생각·바른 행동·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